

보스턴 테러사건 보도 분석 : 한국과 미국, 영국 신문 1면을 중심으로



글. 이만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테러는 희생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성공 여부는 언론의 노출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서방세계는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테러사건이 서방 세계에서 언론의 보도 대상이 아닌 것은 상상할 수 없다.”(Raymond Tanter,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 교수)



시작하면서 :

테러와 언론보도

“테러는 미디어를 먹고 산다”는 말과 같이 테러와 언론은 숙명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테러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행위의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불평을 일탈적으로 표출하는 범죄 행동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폭력적인 이벤트를 자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의도하는 공개적인 논쟁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다.

더욱이 혁명적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한 지역의 테러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생중계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뉴스보도를 통해서 테러범들의 목적이 손쉽게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테러범은 언론이 테러와 시민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고, 그들의 테러행위가 잔인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수록 언론의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미국의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인 월터 래커(Walter Laqueur)는 냉소적으로 “언론은 테러범들의 최고의 친구이고, 테러범들은 우리 시대 최고의 연예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3년 4월 15일 미국 보스턴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보도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 영국신문의 테러보도 형식 비교와 앞으로 재난보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스턴 테러보도 : 용의자 오보

보스턴 테러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12년 만에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첫 테러인데다, 범행 현장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 파장은 더욱 컸다.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 근처에서 연속적으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난 4월 15일 오후부터 미국 언론은 특보 체제를 가동했다. 언론사들의 치열한 속보 경쟁에 따라 예상치 않은 많은 오보를 양산했다.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선정적인 보도로 유명한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가장 먼저 검은색 배낭을 멘 청년과 대화하는 모로코 출신 고교생 육상선수 술라하딘 바룸(Sulahaddin Barhoum)을 용의자로 단정한 사진과 기사를 18일자 타블로이드판 1면에 크게 실었다.



〈그림 1〉 뉴욕포스트 1면 테러 용의자 오보

뉴욕 마라톤 출전에 앞서 보스턴 마라톤을 참관하러 갔던 바룸에겐 수백 통의 비난 섞인 협박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심지어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자 그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신분을 증명하기도 했다. 18일 오후 수사당국이 “언론들의 추측 보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사진을 공개한다”면서 진짜 용의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한 이후로도 바름을 향한 ‘마녀사냥’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속보 경쟁에 눈이 먼 언론사들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진 직후 남들과 반대 방향으로 뛴 남자, ‘용의자는 검은 피부의 남성’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테러 당일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용의자가 잡혔다. 용의자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라는 언론사 오보가 난무했다. 낙종이 두려운 언론사들이 경쟁사의 ‘확인되지 않은 1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문제는 더욱 확산되어 갔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언론사들도 미국 현지의 오보를 생각 없이 받아쓰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16일 미 연방수사국(FBI)은 “용의자는 테러 현장 부근에서 검은색 배낭이나 가방을 지녔던 남자”라며 시민들의 제보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자 ‘레딧(Reddit)’, ‘포찬(4chan)’ 등 소셜 뉴스 공유사이트에선 용의자 사냥이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4월 15일 실종된 브라운대 학생 서닐 트리파시(Sunil Tripathi)가 도마에 올랐다. 트리파시를 찾기 위해 가족들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분석한 레딧은 당국이 지목한 두 번째 용의자가 바로 트리파시라고 보도했다. 지방 방송사도 그가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하다며 앞다퉈 이 소식을 퍼 날랐지만, 4월 23일 그로 추정되는 대학생의 사체가 브라운 대학교 근처 강가에서 발견됐다. 그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

던 가족은 테러범 오명에 사망 소식까지 겹치면서 두 번 슬퍼했다. 레딧에서 보스턴 테러 용의자 수색을 자처한 네티즌 수사대는 용의자가 밝혀지자 트리파시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사과 성명을 내고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하지만 CNN 등 여러 유수 언론들이 속보 경쟁으로 오보를 양산할 때 오직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만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뉴욕타임스는 사실 보도 원칙에 따라 보스턴 테러에 관한 속보를 내보내는 것보다 확인되지 않은 오보를 막는 일에 집중했다. 첫 여성 편집국장 질 에이브럼슨(Jill Abramson)은 보스턴 테러 발생 이후 꼬박 3일을 회사에서 보내며 속보와 오보와의 전쟁을 치렀다. 그녀는 이번 미국 언론의 오보 행렬을 두고 “‘부정확성의 루비콘 강을 건넌 듯하다. 지난 한 주는 저널리즘에 최고이자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한 컨퍼런스에서 회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뉴욕타임스의 보도 태도는 아무리 다른 언론이 보도해도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보도하지 않는 인내의 용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보스턴 테러 관련 미국 언론의 오보 사태에 대해서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현상이며 점점 인터넷 보도매체의 증가와 소셜 미디어 확산, 그리고 언론사 경영난이 부른 또 다른 내부참사라고 미국 언론계는 진단하고 있다.

한·미·영 신문의 보스턴 테러보도 비교

지구촌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미국 보스턴 테러사건은 여러 국가로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하지만 그 보도는 다양한 문화와 관습,



〈그림 2〉 세계일보 보스턴 테러 1면 보도

정치 프리즘을 통해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프레임 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보스턴 테러 관련 신문 1면을 분석해 보면, 한국 언론의 테러보도의 특성은 피해자 중심의 선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나 관련 기관의 테러 관련 발표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피해자를 조명했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일보 1면 테러보도는 사람중심, 현장 중심에 맞추고 있다. 현장과 피해자 중심에 테러보도를 맞추다 보니 선정성을 피할 수 없다.



〈그림 3〉 서울신문 보스턴 테러 1면 보도

4월 17일자 한국 중앙일간지 1면 헤드라인을 분석해 보면 '또 테러패닉'(세계일보), '뒤흔친, 악몽'(서울신문), '뒤흔치다'(한국일보), '공포 재연'(경향신문), '또, 당했다'(국민일보), '공격당했다'(조선일보), '경악'(중앙일보) 등 다분히 선정적인 단어를 남발했다. 또한 〈그림 3〉과 같

이 한국 언론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절규하는 처참한 장면을 여과 없이 1면에 게재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보스턴 테러보도 1면 헤드라인을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발 발생 3명 죽고 100명 사상자 발생 : 결승점에서 혼란 (Blasts at Boston Marathon Kill 3 and Injure 100: Panic at finish line)”으로 사실 중심의 차분한 보도를 했다(〈그림 4〉 참조).



〈그림 4〉 뉴욕타임스 보스턴 테러 1면 보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테러’ 관련 용어나 최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 단어를 배제하고 사건이 발생한 사실과 그 결과에 방점을 두고 보도했다. “두 번의 폭발이 마라톤 도시를 강타함에 따라 보스턴은 테러를 당했다(Terror in Boston as twin blasts hit city marathon)”고 전한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 신문 제목에서도 감정적인 흔들림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선정적인 한국 신문 사진과 달리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가디언은 피해자 구조와 피해복구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장면과 테러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

는 모습을 1면 사진에 게재하고 있었다(〈그림 4, 5〉 참조).



〈그림 5〉 영국 가디언 보스턴 테러 1면 보도

이처럼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가디언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의 중앙일간지들은 선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재난보도의 큰 원칙은 정확한 보도와 피해자 중심의 인권보호가 핵심이다. 테러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현상을 보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실관계에 전문성이 부족한 보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재난보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관한 행동요령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가 제시한 재난 보도 준칙(2003년)은 다음과 같다.

– 재난의 예방과 대응보도에 주력해야 한다.

- 재난의 유형과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염두에 두고 취재해야 한다.
- 피해구호 활동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위험 지역과 시간을 피하고 장비를 갖추는 등 취재기자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물론 테러와 같이 재난을 많이 경험한 미국 방송협회(RTDNA: Radio Television Digital News Associ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테러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2000년)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테러범의 협박을 집중 보도하는 것은 향후 유사 테러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 하지만 테러범의 체포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향후 유사 범죄를 감소시킬 효과가 크다.
- 테러범의 위협을 반복 보도하는 것은 양치기 소년과 같이 진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중들의 관심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 경찰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테러 예방행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언론은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 ‘혼돈’, ‘경악’, ‘테러’, ‘대혼란’과 같은 용어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단어 사용은 다분히 주관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들

이다.

- 사실만을 보도하고 예고와 헤드라인과 그래픽을 가능한 차분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편집국의 통제가 어려운 현장보도를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 사실보다는 과정에 더욱 취재력을 집중시켜라.
- 취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라.
- 취재하기에 앞서 구성원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해라.

이러한 국내외 언론단체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앞으로 한국 언론은 제3자적 자세로 재난과 관련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정한 태도로 사건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마치면서 :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인지 및 실천노력 절실

1812년 영국이 백악관을 전소시켰던 사건,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3번째로 받은 보스턴 테러 본토공격은 자살 공격뿐만 아니라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생생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틀어주는 테러 영상과 관련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 불안감과 같은 테러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을 가중시켰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미디

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폭력적인 메시지는 분명 테러범들이 노리는 것이다.

과연 미디어는 테러범들의 목적 달성에 기여했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테러 행위는 주요 뉴스거리이며 당연히 보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테러보도의 강도와 정제된 내용이다.

“테러는 희생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성공 여부는 언론의 노출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서방세계는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테러사건이 서방 세계에서 언론의 보도 대상이 아닌 것은 상상할 수 없다.”(Raymond Tanter,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 교수)

결과적으로 테러 행위에 대한 보도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저널리즘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테러 행위에 대한 보도를 언론이 무시하거나 보도하지 않으면 과연 테러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사간 경쟁이 치열한 저널리즘 분야에서 언론 기관에 의한 자기 검열이 과연 좋은 생각인가, 그리고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회의적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테러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준수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